

						I-A-5
제목	국문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인지하는 의사-환자와의 관계				
	영문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ttitude among family physicians in Korea < based on paternalism, patient autonomy, and moral eration >				
저자 및 소속	국문	조희숙 ¹ , 이태진 ¹ , 이훈재 ¹ , 최영호 ² , 배상수 ¹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¹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²				
	영문	Heui Sug Jo, Tae Jin Lee ¹ , Hun Jae Lee ¹ , Young Ho Choi ² , Sangsoo Bae ¹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¹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²</i>				
분야	보건관리 [건강행태]	발표자	조희숙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1월 31일					
<p>1. 목적</p> <p>의사-환자 관계는 환자의 치료순응도 향상 및 성공적인 건강행태 개선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다양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환자와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이들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다.</p> <p>한편 의사-환자와의 관계를 부모-자식간의 관계나 스승-제자와의 관계와 같이 비대칭적인 관계로 규정되었던 초기의 연구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능동적 - 수동적 관계, 지도자-협조자의 관계, 상호참여 관계 등이 소개된 바 있으나 현대적인 의료환경에서의 의사환자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의사-환자 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최근 제시되고 있는 권위주의, 환자 자율주의, 도덕적 숙고주의적 관계 틀을 적용하여 의사들이 인지하는 의사-환자관계를 유형화 하며 이들 관계 유형별과 의사들의 성별, 연령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수련과정, 개업기간, 가치관, 직무 만족도등과 같은 제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가정의학과 개원의 2268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상 환자들을 고려할 때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의 경우, 급성질환, 만성 질환 및 예방적 치료활동에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환자들의 질병 중증도가 비교적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환자 및 질환의 특수상황을 보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의사-환자 관계는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권위적 태도, 환자 자율주의, 도덕적 숙고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16 문항-1992년, Erik 에 의해 개발되어 노르웨이 연구에서 사용됨- 을 적용하였으며 항목별 점수를 구분하여 '전통적인 권위형', '신(modern) 권위형', '심사숙고형', '환자자율형', '양가감정형'으로 유형화하여 의사특성별 의사-환자 관계의 인지정도를 비교하였다.</p> <p>조사는 우편조사를 통하여 2001년 9월 21일에서 10월 10일까지 3주간에 수합되었고 응답자 280명에 대하여 무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으로 유형화가 곤란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p>						

3. 결과

1.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의사-환자 관계를 '전통적인 권위형', '신(modern) 권위형', '심사숙고형', '환자자율형', '양가감정형'으로 각각 15%, 11%, 21.3%, 19.7%, 33.1%에서 매우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중 환자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가지는 의사들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권위적 태도보다는 심사숙형이나 환자자율성을 중시하는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2. 성별로는 여의사보다는 남자 의사의 경우에서 권위적 태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 대에서는 양가감정형, 심사숙고형이 많았으나, 40 대의 경우 양가감정형보다는, 권위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50 대와 60 대에서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환자 자율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의를 수련받은 병원이 대학병원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 권위적 태도가 높았으며 현재 개원하는 지역이 대도시나 시지역인 경우보다는 군단위 의원인 경우 권위적 태도가 높았고 대도시나 시지역인 경우에는 심사숙고형이나 자율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의사라는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가치관이 사회적 존중이나 경제적 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권위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의 자존심이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양가감정형이나 환자 자율형이 많았다.

4. 고찰

조사결과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의사-환자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특성에 따라 이들 가치관이 다양화됨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은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환자진료에 있어서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참여적이고 협조적인 관계형성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 전문과목별 의사들의 특성별 의사-환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 및 주민들이 인지하는 의사-환자와의 차이를 조사하여 의사들과 환자들의 태도 차이를 파악하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활성화될수 있기를 기대한다.